

기준금리 3.50% 또 동결... 물가 보다 '경기'

한은, 2·4월 연속... '물가·금융 살피며 추가 판단' 美 금리와 1.50%p 차이... 다음달 연준 결정 주목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한은의 제1 관리대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론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과 이날 동결로 사실상 깨졌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상승률이 2월(4.8%)보다 0.6%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지표도 금통위 내 '비

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연속 동결로 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상 종결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추가 인상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50%포인트(한국 3.50%-미국 4.75~5.00%)로 유지됐다.

이미 2000년 10월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Fed)가 5월 최소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연남뉴스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



비즈 & 피플 <5> 양승빈 (주)호원 전무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광주 대표 기업...2대째 경영 일선 참여 금탑훈장 수상·강소기업 300 지정...나눔·상생 활동도 앞장

“호원이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과 상생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주)호원 양승빈 전무는 자체 부품의 탄탄한 기술력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86년 문을 연 (주)호원은 자동차 자체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호남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 2007년 튀르키예에 진출했으며, 2014년 해외시장 개척과 무역 진흥에 기여한 산업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강소기업을 뜻하는 ‘월드클래스300’에 지정돼 무역, 정보화 등 다양한 국책 사업에 참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포드자동차와 튀르키예 완성차 국영기업인 TOGG와의 협업 등 산업 영향력을 넓혀 나가

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1차 벤더 회사로 대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로 회사가 성장해 왔지만,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이 뒷받침됐다.

부친에 이어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양 전무는 자동차업계에 불어닥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미래 교통수단은 무엇이 될 것인지, 호원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항상 자문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만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호원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는 중이다. 친환경 자동차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서 뒤처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이 몰라나고 전기차가 그 자리를 대신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평한 플랫폼(자동차) 내에 무엇을 둘지가 중요해진 상황. 양 전무는 호원이 가진 차체·사시구조 기술력을 활용한 ‘목적기반자동차’가 앞으로 호원의 중점 사업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무는 “경량화 소재를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및 기술력을 확보 중에 있다”며 “특히 산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R&D역량을 집중해 저비용·고효율·고안전의 플랫폼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 기술을 전 세계에 내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원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양 전무의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이다. 최근 그가 향토사단인 31사단을 찾아 후원활동을 펼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찾아 나눔을 펼치는 활동에 양 전무가 앞장서고 있다.

양 전무는 “끊임없는 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을 견인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호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식거래 증가

광주·전남, 전달보다 28.96% ↑

광주·전남지역의 주식거래량이 두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3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매수금액은 4조 6183억원으로 전달(3조1691억원)보다 28.96%(1조 449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주식 매도 거래대금은 4조 6365억원으로 49.53%(1조 5358억원)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코스닥 매수 거래대금은 2조8133억원으로 전달(1조7694억원)보다 59.0% 증가했으며, 매도 거래대금 또한 1조 7438억원에서 2조7524억원(57.84%)으로 늘었다.

지난달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전달과 같은 ‘포스코케미칼’이었다.

지역민들은 포스코케미칼 주식 1092억원을 사들이고 1251억원 팔아치웠다.

2차 전기 테마주인 금양은 매수 거래대금이 727억원을 기록, 지역민들이 세번째로 많이 사들인 주식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상장사의 39곳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주식시장 혼풍에 힘입어 반등했다.

전월 대비 시총이 1.66%(3079억원) 증가했다. KOSPI는 1.82%(2983억원), KOSDAQ은 0.44%(96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시총 감소(-256억원)를 면치 못한 반면, 한전KPS(2430억원)와 금호타이어(1206억원), 박셀바이오(723억원)는 시총이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전기차에 7년간 24조 투자

화성 전용 공장 기공식

현대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내 투자로 전기차 산업을 고도화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 3’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오트랜드 화성에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의 기공식을 갖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로 전기차 산업 고도화 등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해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하고 글로벌 전기

차 생산량을 364만대로 계획하는 등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 3’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내 산업용 로봇 등은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돼 설비 국산화율이 99%에 이르며, 공장 설비 투자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가 국내 경제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아는 이번 신설 공장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전용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2025년에 선 보일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 SW(프로젝트명)는 중형급 사이즈(Mid-Size)로 개발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은행서 골드바 사고 금고 받고

7월까지 2kg 이상 매매 전 고객에 65만원 상당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 ‘금(金)도 사고 금(金)고도 받고(g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매매중인 한국조폐공사의 오토 골드바를 500g 이상 매입·매도한 개인고객 중 마케팅 동의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골드바를 2kg 이상 매매한 전 고객에게 65만원 상당의 가정용 금고고, 1kg 이상 2kg 미만 매매한 전 고객에게 30만원 상당의 가정용 금고고, 또 500g 이상 1kg 미만 매매고객 중 추첨을 통

해 총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가정용 금고고 증정한다.

한국조폐공사 오토 골드바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매매 가능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래(매매)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홍화 WM고객부장은 “최근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골드바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한동안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이벤트를 적극 활용에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복구 위기기업 근로자 취업 지원

광주경총, 자동차·가전·신성장 산업 대상

광주경제자유협력회(회장 양진석)는 광주시 복구 소재 자동차·가전·신성장 산업 중 위기기업 근로자 고용안정과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복구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시는 2021년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가전산업의 위기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R&D 지원, 위기근로자 창업지원, 근로자 이직전 상담 및 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해왔다.

주력산업 고용안정 사업은 광주시가 주도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경제자유협력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경총은 복구 취업지원센터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복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 취업상담 3000명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840명 ▲집중대상 근로자 1대 1 패키지 지원 180명 ▲근속지원금 50명 등을 목표로 미취업자 취업, 이·전직 예정자 패키지 지원, 미취업자 취업알선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복구 취업지원센터는 광주역 앞 북구 중흥동 삼산빌딩 2층에 있으며, 자동차·가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나 실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이·전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

복구 취업지원센터의 위기기업 근로자 이직전 서비스 및 교육훈련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경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 지원 전남테크노파크, 이동상담소 운영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 농공단지 특화지원 사업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전남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12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전남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은 총예산 16억 8000만원을 투입해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비R&D 기업지원사업이다.

이번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농공단지의 지역 분포를 고려해 순천은 10일 전남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완도는 11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함평은 12일 농공단지협의회사무국에서 각각 운영한다.

사업 관련 모집공고는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n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팀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data.jntp.or.kr)에서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7.86 (+35.78)
↑ 코스닥	898.94 (+11.16)
↑ 금리(국고채 3년)	3.231 (+0.039)
↑ 환율(USD)	1322.20 (+2.50)